

지능형 스마트농업 육성 미래농업 선도

전남도 전국 첫 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

사물인터넷·로봇·인공지능·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등 3개 분야 39개사업 4055억 투자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전남도는 4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스마트농업 5개년 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남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확정했다. 전남도가 이날 확정된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은 '지능형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농업 선도한다'는 비전 아래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계획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스마트농업 기술개발·보급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스마트농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3개 분야 39개 사업에 4055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개발·보급 분야 시책으로 국립농산업지능경영지원센터 건립, 농업용 로봇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한다. 또 노지재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과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모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등을 개발해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과수분야 인공지능 보급과 ICT 이용

과물관리 실용화 기술 보급,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비 재배단지 육성,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지원, 소형 단동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분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농수산물 생산유통 최적화모델 개발,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비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지원 사업을 편다. 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교육 시설 건립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전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농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지난 1월 마무리했다.

이어 국내외 스마트농업 추진실태 및 우수사례를 2월까지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가 자문을 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날 최종 확정했다. 김병률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전국 최초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전남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전남이 대 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데 스마트농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과감히 도입해 높은 지능형 첨단농업으로 바꿈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에 적극 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신문협 "포털뉴스 아웃링크 법제화해야"

문체부·국회에 의견 전달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포털뉴스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한 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방식이 가장 우월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아웃링크를 언론-포털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간의 포털 등의 행태와 시장 구조를 살펴볼 때 자율적 관행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현재 불거진 포털의 뉴스서비스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은 문제가 지적되거나 불거질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언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등의 회피전략으로 일관했으며,

'아웃링크 전환은 이용자 및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시안적 셈법에 빠져 건강한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 문체는 철저히 외면한 결과, 뉴스의 편파성, 획일성, 댓글조작 등 폐해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령으로 규정하라는 것도 자율적 관행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담론시장의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령 등 제도를 통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경쟁상황에서 네이버 홀로, 혹은 특정 언론사 홀로 아웃링크를 선택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령 등으로 규정해 모든 포털이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포털 뉴스 서비스 시장 전체를 일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문 기자 ej6621@kwangju.co.kr



북 김영철 중국서 귀국길 미국 방문을 마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4일 베이징(北京)을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복심'인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오(현지시간) 출발한 평양행 고려항공에 최강일 외무성 북미대사관장 등 일행과 함께 탑승했다. /연합뉴스

한미외교장관 통화 북미정상회담 성공 등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15분간 통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예방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성공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북미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은 물론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둘은 이번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시작으로 한미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구체적인 회담 추진 방향을 논의했음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 그동안의 '일괄타결론'과는 다소 다른 어조로 북미정상회담은 박달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면서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거듭 거론하고 있다. 이번 통화는 지난 1일 양 장관 간 전화 통화의 후속 협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 부위원장과의 뉴욕 협의 및 판문점 북미 실무접촉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 추진 방향과 관련된 미국 측 구상을 설명한 바 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각 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흥 득량도·진지도 드론택배 뜬다

전남도, 전국 첫 시범 운영

전남도가 여객선 정기항로가 없는 고흥 득량도와 진지도에 드론(무인항공기) 택배 배송을 시범 운영한다. 전남도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주소만 입력하면 드론이 알아서 배달해주는 '드론 자율 배송점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드론 자율 배송점'은 우편이나 택배, 각종 배달을 할 때 도로명주소만 입력하면 드론이 스스로 비행하면서 위치를 찾고 사용자가 요구한 지점에 자동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 자율주행과 비슷한 개념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고흥 득량도와 진지도 등 정기항로가 없는 유인도서 2곳에 대해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섬이 많은 전남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물류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산간 지역의 보편적 우편·택배 서비스 실현, 재난이나

폭설 등으로 인한 재해지역에 긴급구호 물품 배달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배송점은 행안부와 전남도·학계·드론 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육상이 아닌 지붕 구조로 돼 있거나, 마당 등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단형 배송점을 개발한다.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해 이동이 가능한 배송점도 개발한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전남도내 279개 유인도 중 현재 정기항로가 없는 86개(31%) 도서로 확산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 요청도 할 계획이다. 김정은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자율 드론 배송점 개발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주소정보의 가치와 활용을 향상시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3533건 ... 난개발 차단 기준 마련 나서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만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이 353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총 9007건 가운데 39%를 차지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이 난개발되는 데다 허가 기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민원이 잦아져 전남도가 태양광발전 사업 적정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5일 화순 한이음문화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행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4일 밝혔다. 전남지역은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가가 비교적 저렴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지 등 난개발이 많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실태를 조사하고 5월 농지, 산지, 전기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7년 개발행위허가 총 9007건 가운데 태양광이 3533건으로

39%를 차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이 시군마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로 차이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 공무원, 발전사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효율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안,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설 66주년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꺽술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꺽술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KHS
심약번호 : 2179239
NAVER 유한바이오펙세생활건강 검색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비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델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이하 급 모델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